



유관순 언니를 생각합니다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 독립 선언문

30년 전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 하셨습니다. “독립 선언문을 외우는 놈이랴 딸을 준다.” ‘오동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하는 그 어려운 긴 문장을 외우는 남자가 어디 있다고. 지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가부장적 제도에서 딸을 결혼이 아니라 시집 보내는 게 못마땅 하셨던 모양입니다. 교육관도 보통의 아버지와는 많이 다르셔서 어린 내가 고생했지요.

예를 들면 버스 옆자리에 앉을 때 먼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실례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든가 학생입장 불가인 영화도 부모가 같이 왔는데 왜 극장에 못들어 가게 하느냐고 따지기도 하셨습니다. 게다가 윤리점수는 빵점 맞아도 좋으니 학생 동원하는 행사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젠 아버지의 세상 보는 눈을 이해하며 부전여전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독립기념관

한반도 내륙 깊숙한 곳까지 임진왜란과 일제 침략이 휩쓸고 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독립국가로 남아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독립 기념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적요한 광장의 비닐 천막 옆에 자판기가 관처럼 서있었습니다. 장중한 맞배 지붕의 본 건물 ‘겨레의 집’에도 ‘불굴의 한국인상’ 조각 양 옆에도 좌청룡 우백호로 자리잡은 자판기와 매점 때문에 기분이 언짢습니다.

물론 그 뒤로 빵 둘러싼 전시관 입구에도 자판기가 친절한 로봇처럼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커피와 음료수를 못 마시면 목이 말라 까무라 치기라도 한다는 말이지요.

한 모금 마시면 몸의 구석구석을 촉촉히 적서 주는 맑은 물과 인공 감미료와 광고로 사람을 홀리는 음료수는 다릅니다. 더 목이 마르니 새롭고 멋진 음료수로 채워 달라고 아우성 치게 만드는 화학무기지요.

● 유관순 사우

가까운 거리 병천에 있는 <유관순 사우>에 들러 참배를 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에 퍼져 나갔을 때 이곳 ‘아우내 장터’에선 유관순 언니가 앞장서서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부모님은 총살 당하고 언니는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만세를 부르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그로부터 1년 뒤 옥사하였습니다.

그때 나이 파릇한 열 여섯 꽃다운 어여쁜 생명. 생가 옆에는 이화여고 동창회에서 지은 교회가 있어 님의 영혼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독립 선언문은 지금도 외워야 해요. 생명과 자유의지를 모독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로부터 독립은 필요하니까요.’

위인이 없고 기억되는 인물이 없어 여성에게는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여성도 역사에 함께 설 수 있게 우리 돈에 유관순 언니를 새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남녀노소 모두 돈을 아끼고 좋아하듯 여성을 존경하고 섬기지 않을런지요

음료수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몸속의 물을 오염시키고 피를 산성화시켜 탁하게 만듭니다. 뼈성분을 녹여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고 신장을 혹사시키지요. 매일 1개씩 마시면 일년에 5킬로그램이 찌고 찌지 않는 포장용기로 쓰레기 강산을 만듭니다. 돈쓰고 몸버리고 쓰레기 만드는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십시오. PPFK